

열리는 문화전당...광주는 흥겨운 문화난장

연중 풍성한 행사

금남로 매주 토요일 차없는 거리

광주비엔날레 재단 4~12일

‘ACC와 함께 하는 폴리데이’

대인예술시장 ‘가을藝감’ 별장

길거리 공연·전시·미술품 경매

‘나비아 공동가자’ 다시 가지게



숙박객을 모집하는 광주폴리 '틈새호텔'.

‘아시아문화전당, 광주 문화 판을 키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을 열면서 금남로, 예술의 거리, 대인시장 등 전당 인근 문화 공간들에선 더욱 흥겨운 문화 난장이 벌어진다. 이미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대인시장 ‘별장’을 비롯해 예술의 거리 ‘나비아 공동가자’ 프로젝트는 도약을 꿈꾸고 있다. 구시청과 충장로 일원에서도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지며 비엔날레 재단도 전당 인근 광주 폴리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무엇보다 5일부터 금남로(금남공원~전일빌딩)가 매주 토요일(낮 12~밤10시)이면 ‘차 없는 거리’로 변신하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젊은이들이 스케이드 보드를 타고, 뮤지션들이 자유롭게 공연하는 장소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5·18민주광장’과 문화전당, 금남로 거리가 하나로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심리적 거리감’ 없이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게 됐다. 광주시 동구 역시 3역원의 시비를 들여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아트마켓, 버스킹 공연, 금속공예·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풍성한 문화잔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 폴리=광주비엔날레 재단은 4일부터 12일까지 문화전당 인근에서 ‘ACC와 함께 하는 폴리데이’를 개최해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폴리II ‘기억의 상자’(금남지하상가 만남의 광장 인근), ‘투표’(구 광주학생독립기념회관 옆 골목), ‘틈새호텔’(문화전당 야외광장), 광주폴리I ‘광주사랑방’(문화전당 옆) 등 4개 작품 인근에서 펼쳐진다.

먼저 문화전당 개관 첫날인 4일 오후 2~4시 광주폴리II ‘투표’ 일대에서 ‘지역의 핫 이슈, ACC’라는 특별코너를 진행한다. ‘현장 질문 제안’, ‘광주폴리 불충놀이’ 등 이벤트가 마련됐다.

문화전당 인근에 위치한 광주폴리I ‘광주사랑방’에서는 7일 오후 7시20분부터 오후 8시15분까지 그레이스와 함께 하는 ‘셀 위 폴리2015; 리멤버 1920’을 개최한다. 문화전당과 광주폴리의 이야기를 담은 샌드아트 퍼포먼스 및 클래식 앙상블 공연도 선보인다.

또 광주폴리II ‘기억의 상자’가 설치된 금남로 지하상가에서는 12일 오후 2~4시 ‘가족과 함께 하는 신나는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이다.

광주폴리 ‘틈새호텔’은 ‘광주사랑방’ 인근 전당 광장에 4~12일 머물며 광주폴리 홍보 등을 펼친다. 4~6일 현장

에서 숙박자를 모집해 선정이 된 사람을 대상으로 7일, 9일, 11일 숙박행사를 진행한다. 숙박은 1박 1인, 20세 이상만 가능하다. 문의 062-608-4265

◇아시아 ‘별장’서 가을 낭만을=대인예술시장 ‘별장’도 열려 가을밤을 문화향기로 물들인다. 대인예술시장 별장 프로젝트(총감독 정삼조) 사무국은 4~5일, 18~19일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별장’을 개최한다.

‘가을藝감’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입구부터 ‘藝감나무’, ‘나무 아래에서 쓰는 희망편지’ 등 각종 테마프로그램이 준비됐고 감추머니와 낙엽컵받침 등 계절 아트상품들이 판매된다. 길거리 공연은 전자현악팀 ‘아르코 앙상블’의 바이올린 연주로 시작해 원준혁, 언니, 이안 등 젊은 싱어송라이터들의 음악이야기가 펼쳐진다. 또 ‘바닥 프로젝트’, ‘우물 안 개구리’ 등도 출연한다.

창작스튜디오 다다(대인수산시장 주차타워 5층)에서는 ‘달마중’을 주제로 세시봉(歲時·Bon) 전시가 열리고 한평 갤러리에서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파격적인 경매가로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는 ‘미술품 경매’는 18·19일 오후 8시 양일간 아트클렉션을 ‘미담’ 앞에서 진행한다. 문의 062-233-1420.

◇‘나비아 공동가자’ 다시 가지게=무더위로 인해 휴지를 가졌던 ‘나비아 공동가자’ 행사도 다시 가지게를 권다. 4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오후 2~7시 예술의 거리 일원에서 진행된다.

예술의거리활성화사업단이 진행하는 4일 행사에서는 성악가, 기악연주자, 대중음악가, 댄서, 전통무용가, 퍼포먼스연기자 등이 16개 공연을 펼친다. 또 민화그리기·플라워아트·자화상조각·대금 만들기·손바닥 석고뜨기 등 28가지의 체험행사는 시민들에게 흥미를 더할 전망이다.

신안 도초고등학교 ‘바다걸락밴드’와 하늘섬 여고스틱밴드의 특별초청무대(오후 4시)와 우정을 플래시몹으로 표현하는 광주청년학생팀의 ‘선과 악’ 공연(오후 4시30분)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사업단은 가족공예, 짚풀공예, 규방공예, 핸드메이드인형만들기 등 10가지 프로그램을 상설화하고 예약신청을 받고 있다. 문의 062-223-0137.

한편 광주시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구시청에서 ‘익사이팅 광주, 구시청’을 개최하며,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충장로 일원에서 ‘젊음’을 주제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희 kimyh@kwangju.co.kr



▲대인예술시장 ‘별장’

◀광주폴리II ‘기억의 상자’

▼예술의 거리 ‘나비아 공동가자’



‘광주·전남 특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내달 31일까지 전남대 도서관 2층 로비

범 시·도민 독서운동 ‘광주·전남이 읽고 독하다’(이하 광주·전남 특)를 진행하고 있는 전남대학교(총장 지병문)가 ‘2015 광주·전남 특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열고 있다.

내달 31일까지 전남대학교도서관 2층 로비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지역민에게 다양한 독후활동 경험을 제공하고 ‘광주·전남 특’ 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작 11편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책과 삶, 일상 속의 책’을 주제로 공모한 결

과 선정된 작품들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모두 82편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심사는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 광주·전남 시·도민의 선호도 조사로 이뤄졌다.

한편 전남대 도서관은 지난 1일 시상식을 갖고 수상자에게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전달했다.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 ‘1그램의 용기로 한라산을 정복하다’(유효진) ▲우수상 ‘The old man and the book’(심재익), ‘독서는 삶이다’(최문숙) ▲특선 ‘명옥현의 오후’(이



미경), ‘소소소笑’(윤원균), ‘교무실 바닥에 앉아’(한경은) ▲입선 ‘알라딘 종교서점’(만호책사랑희3), ‘도서관에서 자란 아이’(이유림), ‘수줍음 Paeony’(도서마루), ‘소년의 여름’(김여훈), ‘이 정도는 겸’(만호책사랑희1). /박성천기자skypark@

광주지역 공동체형 노인돌봄 방안 제시

광주여성재단 격월지 ‘젠더 브리프’ 발간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이 ‘젠더 브리프’ 제16호를 발간했다.

‘젠더 브리프’는 광주지역 여성·가족 정책 관련 이슈와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격월(매년 총 6회)로 발간하고 있다.

이번 호의 주제는 ‘광주지역 공동체형 노인돌봄 지원방안’이다.

책자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노인돌봄 서비스 사각지대로서 일상적 돌봄과 정서적 돌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동

체형 노인돌봄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인구 밀도가 높은 동구 구도심, 여성노인인구가 많은 남구 정촌 관련 이슈와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격월(매년 총 6회)로 발간하고 있다. 이번 호의 주제는 ‘광주지역 공동체형 노인돌봄 지원방안’이다. 책자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노인돌봄 서비스 사각지대로서 일상적 돌봄과 정서적 돌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동체형 노인돌봄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인구 밀도가 높은 동구 구도심, 여성노인인구가 많은 남구 정촌 등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모델을 우선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 도심과 떨어진 남구 대촌 지역과 광산구 임곡의 농촌지역은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타운의 이용이 어려운 지역인 점을 감안, 지역공동체 중심의 안전한 돌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062-670-05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파라다이스
5회연속 선정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임, 전 동신대학교수

진료시간
평 일: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KT 중앙초교 금남로
계림동 한화생명 주화빌딩 교역우회
구.한미소핑 북경랑 한의원
동부소방서

진료문의 (062)227-7575